

이상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조성문
(한양대학교)

Cho, Sungmoon. 2012. A study of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in Sang Lee's poems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25-13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in Sang Lee's poems on the basis of syllable structure. As a methodology, I have divided the syllables of poem into onset, nuclear, and coda, then investigated the phonemic frequencies of each element. Sang Lee's works have been illuminated sufficiently in view of literary theories. However, they have scarcely been studied in terms of their linguistic aspects. Poetry is based upon the relationship of similarity among sounds. Sounds perceived as similar to one another create acceptable rhythm pairs. Because sounds are hierarchically arranged in languages, patterns in poetry can reveal the priority order within this hierarchy. So, with respect to the phonological patterns of Korean, I have analyzed all of Sang Lee's works. At last I find the priority order of Sang Lee's poems within sound hierarchy. Most common are syllables with no onset and no coda pairs. With respect to acoustic features, the most frequent syllable utilize the sonorant feature. This pattern remains consistent over time.

주제어(Key Words): 이상(Sang Lee), 시(poem), 음절구조(syllable structure), 음운론적 특성(phonological characteristics), 우선 순위(the priority order), 공명성(sonorant)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이상 시의 음운론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¹⁾

* 이 논문은 2012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12-G).

1) 본 논문은 이상 시에 대해 음운론적인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상 시의 문학적 연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세 분의 심사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조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덕분에 여러 문제점들이 수정되어 본고가 적절하게 보

시어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소리가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지를 그 빈도를 조사하고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상의 모든 시가 분석된다. 이처럼 한 시인의 시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그 시인의 문체를 파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즉, 본 연구는 문학적 분석의 결과나 다른 시인들의 특성과 비교하면서 문체의 한 특성에 음운론적 특성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한 시인의 문체는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문학적 연구들은 이상은 근대적인 부정 정신 발현으로 파격적 혁명성과 실험성에 바탕을 두었다고 보았다. 그는 다다, 초현실주의라는 모더니즘적 경향을 보이나 시 방법론에서 다른 시인들과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상의 문학이 지닌 근대정신으로서 부정의 변증법과 반역의 정신은 문학이 끊임없이 관습에 대한 반역을 통해 창조적 삶, 생성의 삶에 근접하려는 열린 정신의 산물임을 옹변해 준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고정된 것, 완성된 것, 상투적인 것들에 대한 파괴와 해체의 몸부림으로서 이상의 문학은 우리 문학이 근대적인 것에서 현대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그 근거는 주로 문학적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시에 대한 그러한 주장처럼 파괴와 해체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이상 시의 모든 시가 대상이 된다. 모든 작품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진정한 이상 시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행해지는 음운론적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문학적인 측면이 아닌 언어학적 측면에서 이상 시의 특성 및 문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상 시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 간호배(2001), 강홍기(1986), 김윤식(1987), 김정신(2001), 김주현(1998), 문호성(2000), 박현수(2003), 신범순(1990), 원명수(1977, 1980), 이미순(1997), 이화경(2000), 정덕준(2000), 조해옥(2000), 주현진(2008) 등이 주요 연구이다. 그러나 시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소리의 빈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상의 시 세계에 접근하려고 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상 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본 연구의 방법처럼 분석한 경우는 조성문(2008a, 2008b, 2011) 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문학과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 다른 시인들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비교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이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것이다.

또한 문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으로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분석들이 이루어진 다음, 어휘적, 문법적, 의미적 연구 등 좀 더 다양한 접근이 종합된 다음에 본격적인 문체의 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

한 문체적 특성 중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음운론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시인들의 작품에 대한 종합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밝히려는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음운론적 특성 분석은 그 효용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에 실린 것 중 일본원문시를 제외한 모든 창작 시로 총 56편이다. 분석 대상 시집을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으로 정한 것은 이 시집이 이상의 모든 창작 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집은 그 동안 나왔던 이상 시집들의 오류를 해결해서 2005년에 발간된 것으로 그의 시와 사상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출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 발간된 시집은 각 작품을 원형 그대로 제시하고, 거기에 주석을 달았다. 정확한 원전이야말로 연구에 있어서 토대가 되며, 온전한 주석은 연구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온전한 전집을 구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신에서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에서 제시한 발간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득 가능한 모든 작품은 최초 발표본을 토대로 하여 편집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둘째, 모든 작품들은 원문의 저자명, 발표 시기를 부기하였다.

셋째, 내용 중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주해를 달았다.

넷째, 작품의 배열 순서는 창작 시기와 발표 시기를 동시에 고려했으며, 부분적으로 형식과 내용을 고려했다.

이 연구에서는 음절을 중심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구분을 하여 형식적인 측면인 음운론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기된 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발음 나는 대로 분석하였다. 앞 음절의 받침의 경우 뒤에 모음이 오면 연음시켜서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중성의 경우 중화한 것을 반영하여 7중성만 제시하였다. 그밖에 동화나 축약, 탈락 현상 등도 모두 반영하여 말 그대로 발음 나는 것만을 반영하였다. 한 시인의 작품을 평가하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언어학적 특성 중 가장 미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특성을 분석의 중점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초성과 중성에는 어떤 자음이 주로 사용되었고, 중성에는 어떤 모음이 주로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를 확인해서 이상 시의 경향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말뭉치를 이용하지 않았다. 모든 빈도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주 텍스트

스트를 분석하여 실시하였다.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의 모든 창작 시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구분하여 빈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분석이 끝난 후에 2차례 확인하였다.2)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의 대표 시인인 이상의 모든 창작 시다. 또한 문학계에서의 분석이 본 연구와 같은 음운론적 분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검증하게 될 것이다.

3. 세부 분석

여기에서는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에 실린 이상의 창작 시 총 56편을 분석한다. 그런데 이상의 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총 56편의 시가 분석이 되었는데, 총 음절 수는 44,197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789.2개다.

3.1. 초성

우선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이상 작품의 초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수	5419	4929	2941	3841	2582	1827	3310	2662	1153	522
비율(%)	14.8	13.4	8.0	10.5	7.0	5.0	9.0	7.3	3.1	1.5
	ㅌ	ㅍ	ㅎ	ㅇ	ㅅ	ㅈ	ㅊ	ㅊ	합계	
수	572	642	2636	901	1306	221	863	393	36720	
비율(%)	1.6	1.8	7.2	2.5	3.6	0.6	2.4	1.1	100	

위 표를 보면 초성은 총 36,720개 사용되었는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성이 44,197개이므로 총 음절 대비 비율은 83.1%다. 이것은 이상이 초성이 있는 시어를 대부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음운론적으로도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상의 시어는 그러한 일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언어 보편적인 측면에서 CV 음절이 가장 최적의 음절이다. 어떠한 언어든지 CV 음절형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는 없고,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음절형도 CV 형이기 때문이다 (Jakobson & Halle 1956). 특히 CV 음절은 그러한 보편성 때문에 시어에서 발음하기 편리

2) 철자의 빈도 조사 이외에 시행이나 단어의 통계는 따로 제시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소리의 특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낭독성이라는 시적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 언어의 사용에서 CV 음절이 선호되는지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는 어렵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서 이 점을 검증해 보려고 본다.

초성에서는 ‘ㄱ’의 수와 비율이 5,419개와 14.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뒤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시인들의 작품들은 초성에서 공명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이상의 작품에서는 폐쇄음인 ‘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초성은 ‘ㄴ, ㄷ’ 순이었다. 여기에 ‘ㄹ(7.0%)’의 비율을 합치면 공명음은 30.9%로 높은 편이다. ‘ㄱ’의 수와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상은 음절 초성에 부드러운 공명음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공명도 척도에 의해서 음절 내에서 분절음의 위치를 결정한다. 공명음은 폐에서 올라온 기류가 구강, 인강, 비강 중 어느 하나의 공명실을 울리면서 비교적 순수하게 만들어진 소리이고, 장애음은 구강 안에서 마찰이나 갑작스런 파열에 의한 장애를 동반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길이, 강세와 높이로 발음했을 때 더 멀리 잘 전달되는 소리가 공명도가 크다. 공명도 척도는 대체로 ‘모음>반모음>공명음>장애음’의 순서로 볼 수 있다(Selkirk 1984).

그러므로 이상은 시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음운론적으로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보겠다. 즉, 초성이 있는 음절을 선택하고, 초성도 폐쇄음인 ‘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일반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밖의 초성 선택을 주로 공명음으로 함으로써 특수성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점도 4장에서 다른 시인들의 경우와 비교하도록 하겠다.

반면에 ‘ㅋ, ㅌ, ㅍ, ㅃ, ㅆ’은 2%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ㅈ, ㅊ’을 제외하고 경음과 격음의 비율은 3%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상이 음절 초성에서 경음과 격음의 선택을 선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2. 중성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쪽 표 2와 같다.

표 2. 이상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ㅋ	ㆁ	ㅡ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수	6318	1692	1745	6043	4574	11829	2692	4138	194	331	1066
비율(%)	14.3	3.8	4.0	13.7	10.4	26.8	6.1	9.4	0.4	0.8	2.4
	ㅋ	ㅌ	ㅍ	ㅊ	ㅅ	ㅈ	ㅊ	ㅊ	ㅊ	ㅊ	합계
수	1838	401	195	195	195	623	113	2	6	7	44197
비율(%)	4.2	0.9	0.4	0.4	0.4	1.4	0.3	0.005	0.01	0.02	100

중성에서는 총 44,197개 중 ‘ㅓ’의 수와 비율이 다른 모음들에 비해 11,829개와 26.8%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ㅓ’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저모음으로 공명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명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 음악적 특성을 고려했다고 하겠다. 저모음은 낭독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특성에도 일치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다음으로 10% 이상의 비율을 보인 중성은 ‘ㄱ, ㅡ, ㅑ’ 순이었다. ‘ㄱ’는 가장 안정적인 전설고모음이기 때문이고, ‘ㅡ’는 우리 국어에서 무표적인 모음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ㅕ’가 ‘ㅓ, ㅑ’처럼 가장 안정적인 모음이지만 다른 두 모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6.1%의 비율을 보였고, 오히려 ‘ㅑ’가 더 높은 10.4%의 비율을 보였다. 이 점은 다른 시인들과 비교를 해야 하겠지만 이상 시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현 빈도가 높은 모음의 순서는 4장에서 다른 시인들의 경우와 자세하게 비교하게 될 것이다.

반면 ‘ㅈ’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ㅛ, ㅠ, ㅌ, ㅍ, ㅊ, ㅊ, ㅊ’ 등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상이 단순모음을 선호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3.3. 중성

중성에 대해 분석을 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이상 작품의 중성 수와 비율

	ㄱ	ㄴ	ㄷ	ㄹ	ㅁ	ㅂ	ㅇ	합계
수	794	4918	1081	3169	1009	382	2330	13683
비율(%)	5.8	35.9	7.9	23.2	7.4	2.8	17.0	100

중성은 총 13,683개 사용되었는데, 표 2에서 확인했듯이 중성이 44,197개이므로 총 음절 대비 비율은 31%다. 이것은 거의 70% 정도의 시어를 중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

과다.

중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4,918개와 35.9%로 가장 높았다. ‘ㄹ’은 3,169개와 23.2%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ㅇ’이 2,330개와 17.0%로 그 뒤를 이었다. ‘ㄱ’을 포함하면 공명음이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공명음의 총 비율은 무려 83.5%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이상이 보편적인 음절인 중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사용하더라도 음악적 특성을 가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중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상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시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 부분도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반면 ‘ㄱ, ㄷ, ㅌ’은 7%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폐쇄음이 음절말에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음운론적으로도 보편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종합 분석

지금까지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이상의 작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작품을 조성문(2008a, 2008b, 2011)의 결과인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 분석 결과와 비교, 대조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 표 4는 이상 작품의 총 음절 수와 평균 음절 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4. 이상 작품의 총 음절 수와 평균 음절 수

	음절 분석
시(A)	56
음절(B)	44,197
B/A	789.2

이상은 총 56편의 시를 창작했다. 위 표 4를 보면 총 음절 수는 44,197개이고, 한 편당 평균 음절 수는 789.2개다. 다음 표 5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시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한 편의 시에 많은 시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분석은 단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음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어는 음절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음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상이 한 편의 시에 많은 시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만큼 자신의 시에 담고 싶은 말들이 많았다는 의도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이 점은 일반적인 시인들과는 다른 이상만의 문체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의 음절 수와 비교해 보면 이상 시의

특성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상은 한 편의 시에 시어를 많이 사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평균 음절 수 비교

	이상	김소월	김영랑	박두진	박목월	박용철	정지용	조지훈
평균 음절	789.2	148	92	292.8	87.9	239.5	274.8	148.3

아무리 많은 시어를 사용했어도 박두진 경우 292.8개로 300개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은 그보다 2배 이상인 789.2개의 시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상의 작품에서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성은 평균 음절수, 즉 시 한 편당 평균 시어 수에서 드러났다고 하겠다. 세부적인 비교와 대조는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4.1. 초성

먼저 초성에 대해 분석을 하겠다. 표 1과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 작품의 초성은 총 36,720개가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44,197개이므로 총 음절 대비 비율은 83.1%다. 이 결과는 이상이 초성이 있는 시어를 대부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초성이 있는 CV 음절을 선호한다는 보편성결과도 일치하는 사실이기도 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총 음절 대비 초성 비율 비교

	이상	김소월	김영랑	박두진	박목월	박용철	정지용	조지훈
초성 비율(%)	83.1	78.6	91.9	75.1	77.9	85.8	85.6	76.1

위 표를 보면 김영랑이 91.9%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고 조지훈이 7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은 그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총 음절 대비 초성의 비율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다.

이상의 작품에서는 표 1을 살펴봤듯이 초성에서 ‘ㄱ’의 수와 비율이 5,419개와 14.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비교했을 때, 김소월, 박두진, 박용철, 조지훈과는 대비되지만, 김영랑, 박목월, 정지용과 일치하는 특성이다. 이 결과를 보면 초성의 선택에 있어서 시인들은 ㄱ, ㄴ, ㄹ의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이상은 박용철의 경우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시인들도 초성 선택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상, 박용철이 'ㄱ>ㅣ>ㅡ>ㅏ'라는 같은 특성을,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이 'ㄱ>ㅡ>ㅣ>ㅓ'라는 같은 특성을, 박두진, 정지용이 'ㄱ>ㅣ>ㅡ>ㅓ'라는 같은 특성을 보였다. 오히려 제일 특이한 특성을 보인 것은 'ㄱ>ㅣ>ㅓ>ㅡ'의 순서를 보인 조지훈이었다. 무표적인 모음인 'ㅡ'보다 'ㅓ'를 좀더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은 'ㄱ'의 선택에서는 모든 시인들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박용철과 같이 'ㅏ'를 선택하는 독특함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ㅕ'는 거의 쓰이지 않았고, 이중모음은 대부분이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중모음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동시대의 다른 모든 시인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결과다. 따라서 이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인들은 이중모음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4.3. 종성

이번에는 종성에 대해 분석을 하겠다. 표 2와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상 작품에서는 종성은 총 13,683개 사용되었는데, 중성이 44,197개이므로 총 음절 대비 비율은 31%였다. 이것은 거의 70%에 해당하는 시어를 종성이 없이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종성에서는 'ㄴ'의 수와 비율이 4,918개와 35.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모든 다른 시인들의 작품에서도 일정했다. 공명음 전체의 비율이 높은 것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특성은 이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인들은 종성이 없는 CV 음절을 선호했고, 종성을 사용하더라도 음악적 특성을 가진 공명음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보통 종성이 없는 음절과, 있더라도 공명음과 같은 부드러운 자음이 오는 것이 보편적인데, 대부분의 시인들은 그에 잘 부합하는 성향의 소리를 선택한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초성, 중성, 종성의 출현 빈도를 통해서 이상의 작품과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의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확인해 보았다. 어떠한 소리들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음운적 특성이라는 형식적 측면이 문학적인 선행 연구들의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음운론적 분석이 하나의 가능성은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상이

한 편의 작품에 많은 시어를 사용했다는 것, 초성에서 ‘ㄱ’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중성에서 ‘ㄴ’의 선택을 순서 상 네 번째로 선호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분명 이상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상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는 다른 파격성이 문학적인 분석에서 계속 제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밝힌 음운론적 특성으로도 문학적인 분석 결과인 이상만의 해체와 파괴라는 독특함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한 시인이 문체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론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시인들과 같은 특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상이 초성, 중성, 종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공명성이 높은 소리를 선호했다는 점에서 추정할 수 있다. 공명성이 높은 소리들은 부드럽으면서도 그 울림도가 크기 때문에 음악적인 리듬을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은 이상이 시어의 선택에서 초성과 중성이 없는 음절과 공명성이 있는 소리를 선호했고, 중성에서도 그 공명성이 가장 높은 ‘ㄴ’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V 음절을 선호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이상은 개인적인 독특함을 드러내면서도 보편적인 시인의 특성도 함께 드러냈다고 하겠다.

다만 이러한 통계적 분석으로 이상의 작품 경향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명의 작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드러내고자 했던 내용의 측면과 형식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그러한 특성을 찾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시의 연구를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론적인 층위에서 형식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일반 언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의 사용 빈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량의 문어나 구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일반 언어 자료와의 비교를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일반 언어의 통계 분석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간호배. (2001). 이상 시에 나타난 부정의 미학. *우리문학연구* 14, 267-287.
 강홍기. (1986). 이상시의 구조양상. *국어국문학* 96, 305-326.
 김윤식. (1987). *이상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김정신. (2001). 이상 시 해석의 한 시도. *문학과 언어* 23, 231-242.

- 김주현. (1998).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분열증적 욕망과 우화. *어문학*, 64, 203-222.
- 문호성. (2000). 이상 시의 텍스트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 7-25.
- 박현수. (2003). 이상 시학과 <중생기>의 생략법. *국어국문학*, 134, 287-312.
- 신범순. (1990). 이상 문학에 있어서의 분열증적 욕망과 우화. *국어국문학*, 103, 163-186.
- 원명수. (1977). 불교문학의 측면에서 본 이상시의 주제 의식. *우리문학연구총서*, 2, 75-90.
- 원명수. (1980). 이상시의 형식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 84, 229-231.
- 이상. (2005). *정본 이상문학전집 1-시*. 서울: 소명출판.
- 이미순. (1997). 담론의 측면에서 본 이상 산문시의 장르적 특성. *한국현대문학연구*, 5, 150-169.
- 이화경. (2000). 이상 문학에 나타난 소수 문학적 특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 183-210.
- 정덕준. (2000). 이상의 자아의식, 창조적 회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 64-83.
- 조성문. (2008a).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김소월 시의 언어학적 특성 연구. *언어학*, 16(1), 37-71.
- 조성문. (2008b). 음절구조를 중심으로 한 청록집의 언어학적 특성 분석. *언어연구*, 25(2), 67-82.
- 조성문. (2011). 시문학과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한국언어문화*, 44, 403-426.
- 조해욱. (2000). 물체로서의 육체와 육체의 자율성-이상 시에 나타난 근대적 육체 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 84-108.
- 주현진. (2008). 이상 문학의 근대성: '의학-육체-개인'. *한국시학연구*, 23, 377-417.
- Jakobson, R., & Halle, M.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Janua linguarum 1]. The Hague: Mouton de Gruyter.
- Selkirk, E. (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조성문

133-791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2220-0738
 이메일: mooni67@hanyang.ac.kr

Received on June 29,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August 9, 2012

Accepted on August 9, 2012